7일 시간당 최대 108㎜의 기록적인 폭우가 쏟아진 신안군 자은면 상가가 물에 잠겨 있다 . 자은도에는 이날 오후 6시까지 300㎜의 비가 내렸다. 〈자은면사무소 제공〉

7일 내린 폭우로 광주~무안 고속도로 비탈면에서 10여t의 흙이 쏟아져 4시간여 동안 차량이 통제됐다. 한국도로공사 관계자들이 긴급 복구작업을 하고 있다. /위직량기자 jrwi@kwangju.co.kr

도로 순식간에 2m 깊이 하천으로

물폭탄 맞은 신안 자은도

떠내려가는 냉장고·마늘 종자 보며 발만 동동

하천둑 무너져 108가구 침수 온 마을 쑥대밭

"하늘이 '뻥' 뚫린 것 같았습니다. 평생을 바다에서 물과 함께 살아왔지만, 물이 이렇게 무서운 적은 처음이었습니다."

신안의 조용한 섬마을 자은도가 7일 새벽 1시간 동안 쏟아진 108mm라는 엄청난 '물 폭탄'을 맞고 침수됐다. 불과 하루 전만해도 극심한 가뭄에 시달렸던 이곳에는 이날 하루동안 무려 300mm의 기록적인 폭우가 쏟아졌다.

모든 주민이 깊은 잠에 빠진 이날 새벽 4시부터 1시간동안 내린 집중호우로 하천둑이 무너지면서 마을을 덮쳤고 주택과 도로, 농경지 등 대부분의 시설물이 물에 잠겼다.

도로는 한때 2m 깊이의 하천으로 변했고, 자은도의 중심지인 면사무소로 향하는 중심 차도는 범람하는 강이 됐다.

자은면 대율리 이장 김순용(60)씨는 "새벽에 전쟁이 난 듯한 굉음이 들려 잠에서 깼는데, 하늘에서 폭포수 같은 비가 쏟아졌다"면서 "'어….'하는 순간 빗물이 마당을 넘어 안방까지 덮쳤다. 목숨마저 위태로울 지경이었다"며 놀란 가슴을 쓸어내렸다. 김씨는 "어제까지만 해도 가뭄 때문에 걱정이었는 데, 내려도 너무 내렸다"면서 "집안에 있는 냉장고와 TV 등 가재도구는 물론 마늘종자 등 농사 밑천까지 모두 잃었다"며 울먹였다.

이 마을은 인근 하천 둑이 유실되면서 물이 마을을 덮쳐 김씨 집 외에도 14가구가 안방에까지 물이 차오르는 피해를 봤다.

절박한 상황에서 119구조대까지 출동했지만, 자연이 내린 재앙을 막아내기엔 인간의 힘은 너무 보잘 것이 없었다.

대율리와 지척에 있는 자은면 면 소재지인 구영마을도 쑥대밭이 됐다.

인동초식당을 운영하는 서금옥(48)씨는 "새벽에 지붕에서 '쿵'하는 소리가 나 깼는 데, 물이 가게안으로 들어오고 있었다"며 "하수구를 역류한 빗물이 가게와 손님방까지 1m 이상 차 올랐고, 전기도 끊겨 암흑속에서 몇시간을 오들오들 떨었다"고 당시의 긴박했던 상황을 전했다.

이 식당의 주변에 있던 상가 10가구 주민들도 물이 차오르면서 전기가 끊겨 대피하는 소동이 벌어졌다.

황광연 자은면장은 "새벽에 관사에 물이 차올라 밖으로 나가보니, 면사무소를 향하는 중심도로가 강이 돼 있었다"면서 "도로가 2m가량 잠겨 이렇게 죽는 건가라는 생각 마저 들었다. 이번 폭우로 자은도는 폐허가 됐다"고 말했다. 한편 자은도는 주택 108가구가 침수돼 이재민이 발생했으며, 농경지 700ha도 물에 잠기거나 묻힌 것으로 신안군은 잠정 집계했다.

/신안=조완남기자 wncho@kwangju.co.kr

물바다로 변한 나주

홍수경보 발효 지석천 한때 범람 위기 주민들 대피

농지 3천ha·171가구 잠기고 닭 5만마리 폐사

나주지역에 시간당 최대 95.5mm의 집중호우가 쏟아지면서 농촌마을 곳곳이 순식간에 물바다로 변했다.

특히 영산강 상류인 남평읍 지석천의 수위가 오후 한때 범람(5.13m) 직전인 4.14m까지 올라가면서 홍수경보가 발효되는 등 긴장감이 고조되기도 했다.

7일 국토해양부 영산강홍수통제소와 나주시 등에 따르면 이날 낮 12시를 기해 영산강 상류인 나주시 남평읍 지점에 홍수경보가 발효됐다. 또 나주시 삼도동 나주대교의 지점 수위도 한때 5.53m에 이르면서 범람 징조를 보여 홍수주의보가 발효되기도 했다.

다행히 오후들어 지석천 위를 뒤덮고 있던 먹구름이 강한 바람에 밀려 물러가면서 수위도 점차 낮아져 하천 범람의 고비는 넘겼다.

당시 나주시는 안내방송 등을 통해 남평읍 저지대 주민을 긴급 대피 시키는 한편 시설물 피해 방지를 위해 총력을 다했지만, 갑자기 쏟아진 비 피해를 막기에는 역부족이었다.

이날 쏟아진 폭우로 나주에선 1명이 사망하고, 농경지 3000ha와 주택 171동이 물에 잠기고, 도로 곳곳이 유실되는 등 그야말로 초토화가 됐다. 또 남평읍 우산 1리 인암마을에서는 닭 5만 5천여 마리가 폐사하기도 했다.

농장 주인 형시해씨는 "그동안 무더위를 속에서도 피와 땀으로 닭들을 키워왔는데 모두 죽고 말았다"면서 "닭 사료비 등 밀린 빚을 어떻게 갚아야 할 지 모르겠다"며 울먹였다.

남평읍에서 운영중인 시설하우스 10동(6600㎡)이 모두 물에 잠긴 이태복(62)씨도 "이번 폭우로 그동안 정성들여 키워온 딸기모종과 열무, 시금치 등 모든 농작물이 떠내려 갔다"면서 "큰 비만 오면 반복되는 수해가 이젠 지긋지긋하다"며 분통을 터트렸다. 남평 인근은 수해가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상습수해지역이다.

/나주=최승렬기자 srchoi@
/정칠현기자 chjung@

광주~무안 고속도로 토사 유입 차량 통제

폭우로 인해 광주~무안 고속도로가 4시간 이상 통제됐다.

7일 한국도로공사 광주지사에 따르면 폭우로 일부 구간에서 토사가 유입되고 도로에 물이 차올라 이날 오전 8시30분부터 광주에서 무안으로 향하는 고속도로 전 구간이 통제됐다. 기습 폭우로 인해 물이 차고, 토사가 떠내려 온 지점은 무안IC에서 각각 27㎞ 지점인 노안터널 인근 20여m 구간과 37㎞ 지점 10여m 구간이다.

한국도로공사는 나주IC에서 진입하는 차량을 동신대 방향으로 국도를 이용해 우회하도록 유도해, 출근길 시민들이 30여분 이상의 거리를 돌아가는 큰 불편을 겪었다.

한국도로공사는 통제된 도로 구간에 인력 30여명과 트럭 등 장비를 동원해 긴급 복구에 나서 11시40분께 완전 소통됐다.

한국도로공사 관계자는 "자연재해로 인한 사고 일뿐 도로 자체에 구조적인 결함이 있는 것은 아니다"면서 "사고 원인을 정확히 진단, 보수해 재발을 막겠다"고 말했다. /김형호기자 khh@kwangju.co.kr

해병대화순전우회 회원들이 7일 내린 폭우로 화순성심병원 영안실이 물에 잠기자 잠수장비를 착용하고 들어가 시신을 밖으로 옮기고 있다. 〈해병대화순전우회 제공〉

곳곳 고립 헬기·119구조대 긴급 구조

7일 광주·전남지역 강이나 하천 곳곳에서 사람이나 차량이 고립됐다가 잇따라 구조됐다.

광주시소방안전본부는 7일 오후 1시30분께 광주시 광산구 송산유원지에서 갑자기 불어난 황룡강물에 고립된 김모(67)씨 등 7명을 헬기로 긴급 구조했다. 이에 앞서 오전 10시45분께는 화순군 죽청리 하천에 고립된 권모(57)씨가 불어난 물에 고립됐다가 출동한 소방헬기에 의해 3시간 만에 구조됐다. 송정지하차도와 양동 천변주차장에서는 차량 4대가 침수됐다가 견인됐다. 한편 이날 폭우로 화순성심장례식장 영안실이 잠기자 해병대 화순전우회원 6명이 스쿠버장비를 이용, 시신 3구를 수습하기도 했다. /윤현석기자 chadol@kwangju.co.kr

1만원권 위조 10대 검거

목포경찰은 7일 컬러복합기를 이용해 1만원권 위조지폐를 복사해 불법 유통시킨 김모(15)군 등 2명을 특가법상 통화위조 등의 혐의로 붙잡아 조사 중이다.

김군 등은 지난 5일 목포시 상동 모 마트에서 두 차례에 걸쳐 1만원권 위조지폐를 사용하는 등 물건구입과 택시비 등으로 자신들이 위조한 14매 중 7매를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목포=대성수기자 dss@

"신문값 안준다" 구독자 구두 훔쳐

쌍나팔

○…"신문대금을 주지않는다"며 홧김에 구독자의 구두를 훔친 40대 신문보급소장이 경찰서행.

○…광주북부경찰은 7일 밀린 신문대금을 받지 못하자 구독자의 신발을 훔친 혐의(절도)로 모 신문 보급소 소장 김모(41)씨를 불구속 입건.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6일 오후 2시께 광주시 북구 장모(여·56)씨의 아파트에 신문대금을 받으러 갔다가 현관에서 시가 20만원 상당의 구두 3켤레를 몰래 가지고 나온 혐의.

○…김씨는 경찰에서 "장씨가 4개월 동안이나 신문대금이 밀렸는데도 돈을 주지않아 홧김에 신발을 들고 나왔다"며 선처를 호소.

/이종행기자 golee@kwangju.co.kr